

la Magie du Chocola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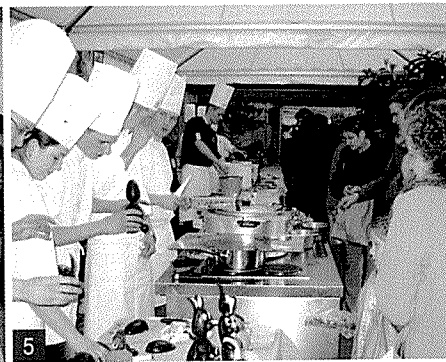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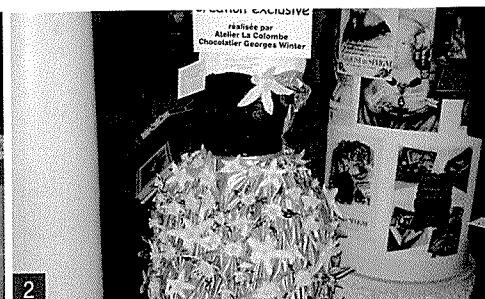
마술처럼 펼쳐진 초콜릿의 세계

프랑스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초콜릿 관련 전시회인

'마지 뒤 쇼콜라(la Magie du Chocolat)'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비즈니스를 위한 산업 박람회가 아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뜻깊었다.

글 · 허윤정 기자 | 사진 · 김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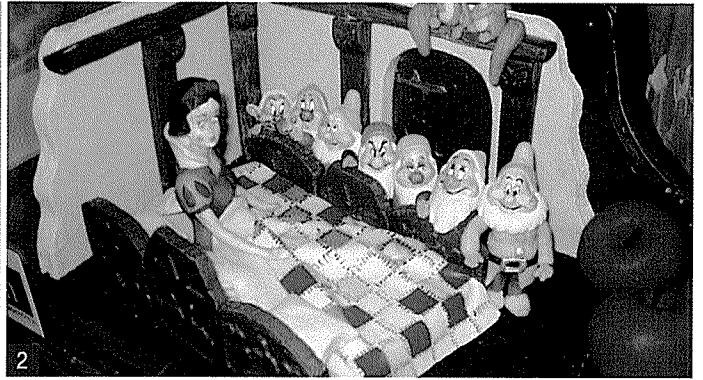


1. 각 업체들은 자사 홍보를 위해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상품을 전시했다.
2. 화이트 초콜릿으로 장식한 드레스, 프랑스 쇼콜라티에 조르주 빈터 씨의 작품이다.
3. 마네킹이 쓰고 있는 화려한 초콜릿 모자가 인상적이다.
4.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 귀여운 동물 모양을 만드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인다.
5. '동화와 옛날 이야기'란 주제로 개최된 초콜릿 경연대회, 진지한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초콜릿 관련 전시회 '마지 뒤 쇼콜라(la Magie du Chocolat)'가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프랑스 동북부의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려 성황리에 끝났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초콜릿 관련 업체들의 부스 전시 이외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일반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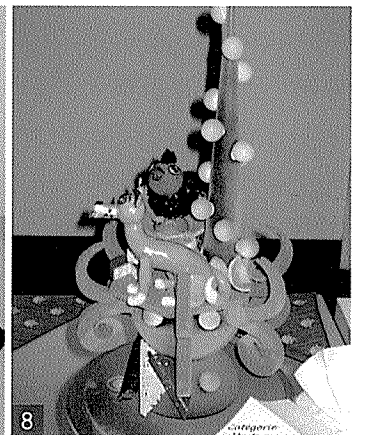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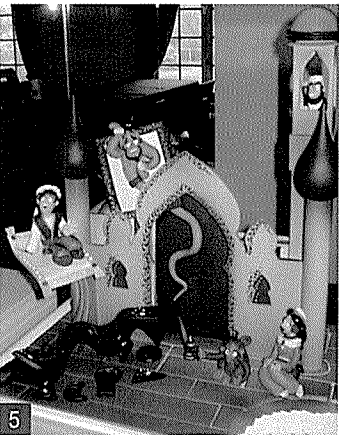
업체 부스와 바이어들이 주로 찾는 산업전과는 전혀 다르게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려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았다. 초콜릿으로 장식된 모자

와 의상 등의 전시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초콜릿 제품을 만들어보는 코너도 마련됐다. 13일과 14일에는 초콜릿 경연대회가 열려 '동화와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로 많은 제과인들이 '백설공주', '야기돼지 삼형제', '어린 왕자' 등 친숙한 이야기 속 장면을 초콜릿으로 표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시 기간 내내 많은 인파로 붐볐던 마지 뒤 쇼콜라는 업체에게는 원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일반 관람객에게는 가족 나들이를 할 수 있게 해 모두가 즐기는 전시회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㉞



달콤한 초콜릿과 함께 신비로운 동화 속으로!

1.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표현한 작품.
2. 일곱 난쟁이의 얼굴을 세심하게 만들었다. 침대 옆에 커다란 사과가 인상적.
3. '빨간모자'의 한 장면을 나타낸 작품으로 늑대의 표정이 재미있다.
4. 식탁에 마주 앉은 미녀와 야수를 그린 초콜릿 공예.
5. 정교한 성과 주인공을 생기있게 표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
6. 아기돼지 삼형제의 익살스러운 얼굴이 눈에 띄는 작품.
7. 프랑스의 대표적인 어른들의 동화 '어린왕자'도 등장했다.
8. 기하학적인 무늬와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인상적인 출품작.



유럽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프랑스 알자스-로렌 지방의 주도(主都)인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로 유럽 연합(EU)의 의회가 자리한 곳이다. 옛날 가옥들이 많은 구시가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독일과 접해있어 음식과 가옥의 형태 등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산업지이기도 한 스트라스부르는 앞으로 유럽의 중심으로서의 발전된 도시와 옛 정취를 간직한 전통 도시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